

고추, 수량 늘리고... 기능성 성분 함량 높이고...

농진청, 묘 기르기 통해 수확량 ↑

액비 뿌려 향산화 물질 높이는 기술 개발

고추 수량을 늘리는 기술과 기능성 성분 함량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돼 농가 소득이 향상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침체된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고추 수량을 늘리는 기술과 기능성 성분 함량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 생산비는 중국보다 약 7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고추 자급률은 2018년 44%, 2019년 36.1%에 머물고 있다. 새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육묘(묘 기르기)를 통해 수확량을 늘리는 기술과 액비(물거름)를 뿌려 고추의 향산화 물질을 높이는 기술이다. 수확량 향상 기술은 줄기를 기존 1

줄기가 아닌 4줄기로 재배하는 육묘 방법이다. 아주심기 1~2주 전 고추의 결가지(촉지)를 발생하게 한 뒤 아주심기 후 여러 결가지 중 상태가 좋은 4개 줄기만 남겨 재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재배법보다 수량을 식물체 하나당(1주) 45%, 면적당 23%까지 늘릴 수 있다. 심는 거리가 넓어져 면적당 묘목 수가 반으로 줄면서 작업이 편리하고 병충해 발생이 줄어든다. 대부분 국산 품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활용성도 높다. 향산화 향상 액비 기술은 국내 자생지에 풍부하게 자라는 양미역취, 인삼 부산물 같은 산야초와 약초, 해초 등 13가지의 원료를 이용한 세계



수량향상기술로 재배한 고추.

최초의 기술이다. 연구진이 아주심기 한 달 뒤부터 2개월 동안 액비를 6회 준 결과, 고추 내 향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20.7%, 플라보노이드는

18.8%, 폴리페놀은 27.8%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향산화 물질은 항암 효과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액비 재료는 안전한 물질로 입증된 것들로서 식물 자원이 고추의 2차 대사산물에 미치는 원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고추 수량을 늘리는 재배기술은 현재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국제 특허를 출원 중이다. 올해 16헥타르(ha) 면적에 기술을 보급했다. 또한 기능성 향상 비료개발 기술도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2~3년 안에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이우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체세포장은 "수량과 기능성 향상 기술을 주요 작목에 확대 적용하면 침체된 고추 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내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11기 창업팀 사전선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 사전선발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준비팀과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경진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 올해 50개 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2년 미만의 초기창업자(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 기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사전선발 창업팀은 본선발 창업팀과 함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연계,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며, 법인설립 단계부터 판로·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한다. 조지훈 원장은 "창업·성장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창업팀을 상시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2020 농식품부 국정감사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 '감소세'

농지전용도 2016년부터 작년까지 6만3211ha가 사라져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15.7%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지난 2010년 17.1%에서 2019년 15.7%로 감소했다.



식량자급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적절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밀 9.9%, 옥수수 8.2%, 콩 45.2% 등의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자급률을 살펴보면 밀 0.7%, 옥수수 3.5%, 콩 26.7%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적자 순위는 2018년 기준 세계 4위로 식량주권과 안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국가 식량자급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은 국가 농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에 물음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밀, 콩, 팥, 녹두, 참깨 등 절대 부족 품목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계약 재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소된 경지면적은 13만4,000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462배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2013~2017,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의 보전과 간척지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2010년 102만 7,000ha에서 2019년 98만6,000으로 9년간 4만1,000ha가 감소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해당한다. 농지전용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3만7,263건의 농지전용으로 농지 6만3,211ha가 사라졌다.

식품제조업 수입산 원료사용비율 70%

민주 이원택 의원 "해외 원재료부터 독립 필요"

식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인 국산 농산물 사용률이 31%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의 원료사용 비율이 수입 68.7%, 국산 31.3%로 수입산 원료 사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사용된 원료는 8,352만톤이다. 이중 수입원료는 5,731만톤으로 수입규모는 56조원 규모이다. 반면 국산 원료는 2,620만톤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국산원료의 경우 수입원료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식품산업계가 식품원료를 수입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식품제조업체에

서 사용되는 원재료의 국산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는 2019년 81조 77억원으로 18년 78조 9,070억원 대비 2.7% 증가했고 최근 3년간(17년~19년) 연평균 3.9%로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식품산업 성장과 함께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국산화 추진에 성공했듯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농업의 소·부·장이 필요하다"며 "종자·식자재·AI농기계가 해외로부터 독립해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식자재 부문에서 쌀, 밀, 콩, 김치의 국산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유해물질 분석능력 국제적 수준 입증

농관원 전북지원,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유해물질 3개 분야 모두 '만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0년 식품 및 토양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유해물질 분석 능력이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영국 식품환경청(FERA) 주관의 프로그램(FAPAS, FEPAS)과 미국 환경자원청(ER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ERA PT)에 잔류농약·중금속(농산물, 토양), 미생물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숙련도 평가 방법은 결과 값을 알지 못하는 시료를 분석해 z-score 값이 ±2.0 이내면 '만족', ±3.0 이상이면 '불만족'으로 평가한다. z-score는 분석능력의 통계적인 평가기준 값으로 0에

근접할수록 정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엔 전북농관원이 제출한 식품분야(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와 토양분야(중금속) 유해물질 분석 값은 모두 z-score 값 ±2.0 이내로 '만족' 평가를 받아 분석역량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농산물의 중금속(카드뮴, 납)과 미생물(바실러스 세레우스) 분야는 z-score 값이 0으로 나와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전북농관원은 국제 숙련도 프로그램에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참여해 9년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유지하는 국제적인 시험·분석 기관으로 인정받아 왔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유지하기 위

해 다양한 유해물질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며 "이러한 분석능력은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농관원은 주로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출하 전에 안전성조사(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이 로컬푸드 1번지인 점을 감안해 농협·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납품농가 교육지도 등을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사후에 쓰레기봉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합법 동물장묘업체는 49곳

대부분의 반려견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이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견이 사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체 발생현황은 양육가구, 반려동물 평균수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충분치 않아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49곳만 존재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장묘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벌써 6곳의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호상 기자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희소식

전북중기청, 16일까지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엔 특별공급예정인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제'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계성건설이며, 주택위치는 익산시 팔봉동 343-2번지 일원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9세대(확정추천 19세대)다. /김윤상 기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적속(주택계약금 합쳐,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기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입주자격 없이 임대주택 계약갱신해 거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갱신 해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개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보증금 가져오기 미수행 현황(2017년 1월~2019년 9월)'에 따르면 자사에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한 사례는 총 8만8,915건 중 81.8%가 자산기준을 초과해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호상 기자

이는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해 자산기준을 산출하는데 이 중 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누락하고 자력심사를 진행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별 자산기준 초과자는 인천 지역분부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지역분부가 109명, 대구경북지역분부가 10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이 599명으로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구임대주택이 1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위기를 건강하게 이겨내자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된 릴레이 공익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손 모양에 비누거품을 더해 손 씻는 그림과 함께 '견디내자(Stay Strong)' 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성일 본부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북농협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의 캠페인 지목을 받은 박성일 본부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성태근 회장, 전북도민일보 임환 사장,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 등 3명을 지목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